

사람과 기술, 대덕과 사람

DAEDUCK Story

소식지 대덕스토리 봄호 Vol. 28



발행일 2021년 04월 02일
Publis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관리팀 총무그룹
Editor 채지혜
T.031-8040-0649 F.031-8040-8082

| CEO 메시지
| 명예사원

| 대덕뉴스
| 건강한 내일

www.daeduck.com

디자인 편집디자인회사 귀기울 인쇄 대신인쇄

올해는 TOP의 문화를 가집시다

팀워크 Teamwork

우리는 조직의 변화에 적응 중이나, 아직 팀워크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팀워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팀내에서는 팀의 목표, 더 크게는 회사의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너십 Ownership

회사에 대해, 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기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고 내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회사의 공용비품, 공용공간도 내 것,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소중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너십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프로페셔널리즘 Professionalism

실력이 좋은 선수는 감독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감독이라고 해서 꼭 선수보다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해야겠습니다. 프로는 자기의 실력을 닦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프로가 되어 정당한 요구를 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즐기자.

회의를 하다보면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에 회의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리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만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성향,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은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불편함을 서로 이겨내는 과정이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틀린 것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즐겨 업무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실을 다지자

첫번째, 업무의 명확화

불명확한 업무분장은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며 업무 차질을 야기합니다.

중복도, 누락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매년 업무 R&R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계획 및 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계획/목표에 대한 실행방안이 좀 더 구체적일 때 업무의 실행력이 높아지고 목표 달성도 가능합니다. 회의를 할 때는 AR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 실행내용, 날짜, 담당, 완료여부의 항목을 작성하여 업무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번째, 고객과 함께 Biz를 하는 조직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가치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고객을 대응해야 합니다.

쌍방향 소통을 하자

업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조할 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L, 팀장, 임원은 감독자의 역할 보다는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코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의 소통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좀 더 즐겁게 일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자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부적인 문제에 붙잡혀 가치 있는 일을 못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고자료를 만들 때 일어납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고자료는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1~2페이지로 구성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회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을 갖추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이사 신영환



근무복 자율화 시행

2월 15일부터 전 사업장 근무복 자율화가 시행되었다. 통일된 근무복을 벗고 회사 출근에 맞는 단정한 자율복장으로입으면 된다. 사원증은 항상 착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근무복을 자율로 착용할 수 있다. 단 공정 출입시에는 반드시 공정별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 꼭 유념해야 한다. 근무복 자율화를 시작으로 수평적 조직과 세대간 문화 격차 해소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나아가길 바란다.

B1 동도금 외부저장조 탱크 화재 발생

2월 12일 B1 외부저장조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하던 중 창문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당직 사원이 최초 발견, 이후 탐원들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여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환경안전그룹에서 매년 진행하는 비상대응훈련의 효과가 확대되었다.

전자도서관 오픈

2월 17일 전자도서관을 오픈하여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실시했다. 우리회사의 도서관은 B1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즐길 수 있다. PC,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벤트로 도서후기를 쓰면 이북리더기를 상품으로 주니 많은 참여 바란다.

금연 펀드 진행 현황

지난 1월 임직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사내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펀드를 실시했다. 초기 가입자는 81명이었지만 양

심선언과 중간 점검으로 총 30명이 탈락해 51명이 도전 중이다. 예치금은 총 16,200,000원이며 탈락자에게는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성공할 사람이 누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길 바란다.

HQ Backend 공정 구축

HQ 1,2층 기존 자재창고와 회의실이었던 공간이 PSR 공정으로 바뀐다. FCBGA 기술 및 생산 CAPA, 확보를 위해 증축투자를 결정했다.

공사 기간 내 소음과 악취 냄새가 발생하여 몇몇 관리팀들은 이동 근무를 하게 되었다. 기술 인프라 그룹은 급하게 구축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한다며 말을 전했다. 공사는 오는 3월 31일 완료 된다.

전사 식당 비밀차단막 개선 보완

코로나19의 생활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전사 식당 테이블에 비밀 차단막이 개선된다. 기존 앞사람만 가려주던 간이 가림막이 아크릴 막으로 변경되어 앞사람 뿐만 아니라 옆사람까지 막아줘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장 위험한 공동 공간인 식당에서 만큼은 대화를 자제하고 식사 후에는 필히 마스크 착용을 하길 바란다.

제1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3월 25일 목요일 MTV에서 대덕전자 제1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46%가 참석하여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안건에서 사내이사로 지상철 본부장이 선임 되었다. 금번 이사보수한도는 15억원, 감사보수한도는 3억원으로 승인되었다.

신영환 대표이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하는 한 해,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월



경방지거 TL

TCR본부 BGA PSI그룹

모범상

L-test 투입 process 간소화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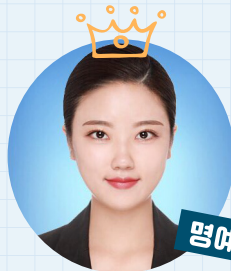


김현수 TL

TCR본부 BGA 설계그룹

우수사원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객대응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방희은 TL

TCR본부 FC기술팀 BSI그룹

명예사원

SAWING 공정 Capacity 및 Chipping 불량 안정화



안재철 TL

TCR본부 MLB센터 제조3파트

명예사원

동도금공정 약품재고 비용 감소 & 약품관리 표준화

화재진압 모범사원

" B1 동도금 외부 저장조 탱크 화재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피해확산 방지 "

TCR본부 BGA동도금파트



김정기 TL



이 슬 TL



임영근 TL



정상문 TL

2~3월 품질혁신상

" 수율 활동 및 현장관리 우수 공정 "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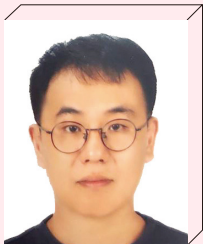
**BGA PSR
BGA 금도금
MS 동도금
MLB PSR**

3월

**BGA PSR
MS 동도금
MLB 동도금**



담배와 멀어지니 피로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금연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크면서 나쁜 영향을 줄 것에 대한 고민과 흡연 기간이 생애 50%를 초과하여 평상시에도 금연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론적으로 실천력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회사 금연 캠페인을 접하고 공개적으로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흡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탈락자들 가운데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소감은?

23년 이상입니다. 몇차례 유혹을 잘 넘겨서 다행이고, 코로나효과(술자리 금감)활용 잘해서 마지막까지 성공했으면 합니다. 다른 도전자분들도 힘내세요.

금연한지 두달째인데 어떤 변화가 있으며, 본인만의 금연 전략은?

피로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체중은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담배연기를 맡으면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담배냄새가 싫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지만요...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금연 보조제를 활용했으며,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식사 후 최대한 빨리 양치를 하여 흡연욕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조다연TL입니다. 수시로 간식거리를 잘 챙겨주고 있어요. 가족들은 제가 과거 금연 실패 경험이 있는지라 반신반의 하며, 아직도 실패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분리수거나 편의점을 다녀오면 의심의 눈초리로 뭐하고 왔는지 캐묻고 합니다. 하지만, 전 멋뻐합니다.

금연에 성공/실패한 미래의 자신에게 한마디

실패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했지? 1차 관문통과 한 것 축하하고, 앞으로는 평생 2차 관문 시작이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앞으로도 평생 금연 하면서 건강 잘 챙기자~

멘토로서 최선을 다해 금연을 돕겠습니다!



멘토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매 쉬는시간, 점심시간 마다 흡연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금연을 하도록 야외에 나가서 같이 수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입이 심심치 않게 간식을 챙겨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을 자처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황경하TL이 최근 득녀를 하여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흡연을 하고 손을 씻어도 잔류 유해물질이 옷이나 몸에 남아 아기에서 전달이 된다고 하여 제가 멘토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흡연경험이 있나요?

군생활 때(10년 전) 2년간 피웠다가 끊고 제대한 적 있습니다. 당시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군대 이야기는 많이 하면 싫어하시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디에 쓰고 싶나요?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하면 그간 금연하느라 많이 고생하신 황TL님과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멘티에게 응원의 한마디

금연을 시작한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4개월도 지금까지처럼 유지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파이팅!



코로나 시대, 개인 방역을 준수해 주세요

대덕전자 대인 방역 준수 서약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도 방역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서약서를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전히 가까운 주변에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답답하고 피로하더라도 끝까지 방역준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직장내 감염 '0명'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마스크입니다.**

사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올바르게 착용바랍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 **입만 가리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귀에 거는 행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하기

모임, 약속 자제, 밀폐공간방문 금지, 동거인과 함께 방역바랍니다.

발열 등 증상, 의심사항 수시 확인하기

증상에 따라 휴식 또는 1339문의, 특이사항시 즉시 보고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마스크 착용하기

전직원, 방문객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손씻기(손소독) 습관화 하기

동료와의 물리적 거리두기

항상 1~2m 두고 대면하며, 동선과 대면자를 최소화합니다.

공동공간에서는 대화 금지하기

담의실, 휴게실, 식당에서는 대화를 금지합니다.

함께 실천하기

사내 감염 위험 장소나 방역 미준수자로
감염병 우려시 연락바랍니다.

가장 방역 수칙
나와 동료, 가족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 사내 방역 현황

구분	건수	사유	조치
자가 격리	임직원 4	확진자와의 접촉 및 동선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자가격리 해지시까지 출근 제한
	동거인 9	배우자 직장 및 자녀 학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동거인 자가격리 해지시까지 출근 제한
검사자	임직원 18	동선 접촉에 의한 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동거인 27		
단순 유증상자	20	감기 및 발열증상으로 검사	휴식 후 증상 호전시 출근 (필요시 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합계	79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삶의 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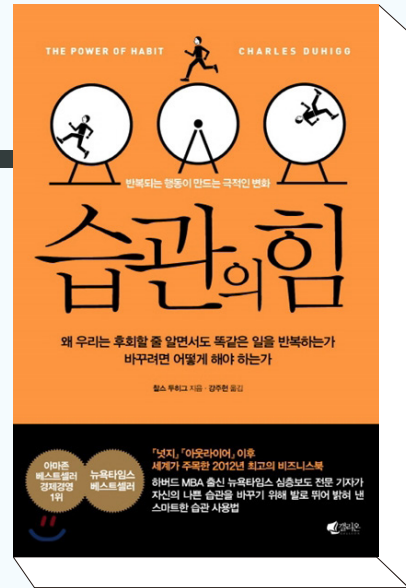
습관의 힘(찰스 두히그 저, 갤리온)

우리의 삶은 습관의 연속이다. 우리가 매일하는 행동의 40퍼센트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때문이라고 한다.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습관을좋은습관으로 바꾼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책에서는 습관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들은 개인과 기업, 사회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준다. 그중에 기업의 습관에 관련된 것을 하나 소개할까 한다. 알코아(Alcoa)는 미국1위의 알루미늄회사다. 새로운 경영자로 오른 폴 오닐은 신임 최고경영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위한 행사에서 노동자 안전에 대해서 말했다. 영업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알코아의 주식을 팔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닐이 취임하고 1년만에 알코아는 기업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다. 오닐은 조직전체의 습관이 얼마나 바뀌었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안전수치라고 하였고, 안전 수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알코아에서 안전습관이 바뀌자 다른 부분들도 급속히 바뀌었다. 생산라인의 속도가 너무 빨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노동자에게 생산라인을 멈출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관리자들이 과거에는 한사코 반대했지만, 이런 정책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하급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패널수익이 2배로 신장했다. 폴오닐은 2000년 알코아에서 은퇴했으나 그가 떠난지 10년이 지난 2010년까지도 알코아는 최고수준의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다. 회계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만화가, 프로그래머보다 알루미늄 쇠물을 다루는 노동자가 사고당할 위험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



라운 기록인가?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이나 하고 유튜브만 보던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했던 독서량이 작년에 50권을 넘었다.퇴근 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올랐고 어느새 아무의식 없이도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다.조금의 습관 변화가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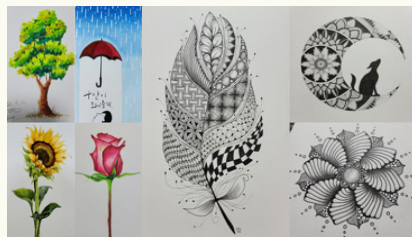
글 : TCR본부 MLB센터 이미지 조태형TL

퇴근, 내일을 위한 충전 시작!

대덕전자 사우들의 퇴근 후 일상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퇴근 후의 시간들의 의미가 커졌다. 퇴근 후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출근하는 일상은 이제 너무 먼 현실이 되었다.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퇴근 후'. 우리 대덕전자 사우들의 퇴근 후 일상이 궁금하다.



TCR본부 BGA제조3그룹 김동성TL

작년 9월 새롭게 시작한 그림 그리기 취미 생활은 수채화와 젠탱글 그리기! 특히 집에서 좋은 음악 틀어놓고 젠탱글 그리는 것이 일상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뇌를 쉬게 해주는 힐링 타임이죠.



재경팀 최혜수TL

지루한 코로나 일상을 특별하게! 밖에 나가진 못해도, 집에서 맛있는 안주를 예쁘게 차려 놓고 먹는 샴페인 한잔에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TCR본부 BGA PSR 강정훈TL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곤 합니다. 등산하면서 마스크 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곁에 있던 소소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더 없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Quiz

호성의 규칙에 따라 빈 칸을 채워주세요!

○ ○ 人 人 ○ ○ □ □ □
人 人 ○ 人 ○ 人 人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보담당자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파리바게트 교환권을 드립니다.

대덕스토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취미소개, 도서후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보담당자 : 총무그룹 채지혜 TL



지난호 퀴즈 정답 : 19

풀이 $11 \times 11 = 121 / 1+2+1=4$
 $22 \times 22 = 484 / 4+8+4=16$
 $33 \times 33 = 1089 / 1+0+8+9=18$
 $44 \times 44 = 1936 / 1+9+3+6=19$

정답자 : 성지훈 / 김태호 / 반윤호 / 정해민 / 조수연